

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의 銘文에 對하여

尹 武 炳

延嘉七年銘佛의 光背 銘文에 對하여 本誌前號에 실린 金元龍教授의 글
을 읽고 매우 啓發된 點이 많았다. 筆者는 좀 다른 關心에서 그 銘文中
에 보이는 高麗와 樂良이라는 이름에 對하여 言及해 보려 한다.

高句麗의 國號는 三國誌에는 高句驪 高句麗 句驪 句麗로 書稱되어 있
으며 晉書에도 그와같이 記錄되어 있다(다만 句驪라고 한 경우는 없는

것 같다)。 그것이 高麗로 書稱되기 시작한 것은 北魏(三八六—五三八)의
史實을 敘述한 魏書와 南朝의 宋나라(四二〇—四七九)史書인 宋書로부터
인데 前者의 編纂은 北齊時代(五五〇—五七七)이며 後者는 梁(五〇二—五
五七)나라 때의 일이었다. 그러나 北齊때나 그보다 약간 앞서 梁나라 때
에 高句麗를 高麗로 부르기 도 하였던 것은 틀림없었으나 問題는 어느 때
부터 그와같이 쓰고 부르기 시작하였을까 하는 點이다. 즉 實地로 北魏
時代나 宋나라 때부터 高麗라고 하였는지의 如否가 分明치 않은데 筆
者의 생각으로서 는 이미 北魏 太和(四七七—四九九)頃에는 그와같이 書稱
되어 있었다고 믿어진다. 그것은 北魏 太和十五年(四九一)에 高句麗 長
壽王이 昇遐하였을때의 詔勅에 高麗王이라 하였으며(魏書卷一百八 志第十
二 禮四之三) 또 같은 魏書의 百濟傳을 보면 延興二年(四七二)百濟使
臣을 魏에 보내어 高句麗의 南侵을 呼訴하고 乞師하였을 때의 上表文中
에 高句麗와 高麗의 이름이 併用되어 있으며 그에 對한 魏帝의 詔에 역
시 高麗라 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. 이 記錄들은 그 史實에 關係되는 第
一次의 史料 즉 詔勅이나 上表文을 그대로 收錄하였음이 틀림없었으나 特
히 百濟의 上表文中에 高句麗와 高麗의 두가지가 함께 보인다는 것은 魏
書의 撰者가 上表文을 原文대로 忠實히 실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.

高麗에 對하여 또 한가지 注意해야 할 것은 그 麗字의 書體가 「麗」로
새겨져 있는 點이다. 여기에 對하여서는 高麗 成宗 初年에 崔承老가 上
書한 著名한 時務策二十八條를 생각케 되는데 그 첫머리 句節中에
「於施值金鷄自滅之期 乘丙鹿再興之運」이라는 文句가 보인다. 이것은 王
建高麗의 建國識說 關聯되는 말로서 金氏鷄林(新羅)이 亡하고 丙鹿 즉
麗國이 일어난다는 內容임은 李丙巖先生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다.

〔高麗時代의 研究〕第一篇第一章第一節 우리는 그 丙鹿을 單純히 圖識家
의 입에서 나온 말인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번 發見된 佛像의 光背 銘
文에 의하여 實地로 高句麗 사람들이 그러한 글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
을 알게 되었으며 매우 깊은 感慨를 느끼게 한다.

다음 樂良東寺의 樂良에 對하여서는 그것이 漢武帝 設置의 樂浪郡에 서 나온 이름임에 對하여 아무도 딴 생각이 없을 것이다. 樂浪郡은 西晉의 建興元年(三一三)에 高句麗에게 滅亡 當한 後로는 西遷하여 遼西地方의 慕容氏에게 歸附하였으며 지금 錦州府境內에 治所를 두고 있었다. 이 西遷 樂浪郡은 그후 前秦 後燕 北燕時代를 거쳐 다시 北魏에서 東魏 때까지 그 餘命을 이어 나가고 왔는데 지금 魏書 地形志를 보면 그 郡名이 두군데에 記錄되어 있다. 하나는 南營州에 所屬되는 領郡中에 또 하나는 營州에 所屬되는 領郡의 하나로 記錄되어 있다. 번거로운 考證은 省略하겠으나 南營州는 北魏末에 營州가 契丹에게 占領되었을때 關內로 避하여 지금 保定府 近處에 寄治하였을 때의 이름이니 兩者는 원래 同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. 그런데 이 南營州와 營州條下에 보이는 樂浪郡은 樂良郡으로 의여져 있으며 漢書以下 十六國疆域志에 이르기까지 常用되어 있는 樂浪의 浪字와는 다른 良字로 만들고 있다. 이 樂良의 이름에 對하여서는 魏書의 撰者는 營州條下의 樂良郡에 來註를 따라 「前漢武帝置 二(前後) 漢晉曰樂浪 後改罷 正光末復治連城」이라 하여 일부러 事緣을 밝히고 있으므로 北魏時代의 郡名이 樂良이 었다는데 對하여서는 더 以上 疑心할 餘地조차 없는 것이다. 뿐만 아니라 中間에 改罷되었던 樂浪(良)郡이 다시 北魏에 들어와서 復設된 時期가 正光末(五二四)이었다고 明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佛像의 造像年代를 잡는데 한가지 暗示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.

다시 말하자면 이 佛像의 年代는 그 光背에 새겨져 있는 樂良東寺의 이름으로 해서 樂良郡이 復設된 北魏 正光末年(五二四)을 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黃壽永, 金元龍教授들이 樣式上으로 보아 延嘉七年己未歲를 西紀五三九年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매우 妥當하다는 또 하나의 根據를 얻은 結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西紀五三九年은 이미 北魏가 滅亡하고 東魏가 일어났지 六年이 되지만 樂良郡은 그보다 三年前인 東魏의 天平四年에 또 다시 復置되어 存續되어 있었으므로 樂良東寺의 이름이 바로 그 樂良郡에 緣由한 寺名이 었다고 생각하는데 別로 異論을 들만한 것이 없으리라 믿는다. (樂良郡은 그후 北齊時代부터는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)

끝으로 彫像樣式上의 問題에 對하여 筆者의 생각을 덧붙이면 이 延嘉七年銘佛은 北魏金銅佛中에서도 所謂 正光樣式의 佛像들과 恰似한 特徵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. 中國金銅佛史上 太和金銅佛들이 最初의 빛난 時代를 가져왔으나 아직 그 特色이 不明瞭한채 다음 正光期樣式의 佛像으로 發展하여 비로소 그 樣式이 定型化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發見된 이 高句麗佛像이 그 正光佛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美國 메트러포리턴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는 正光五年銘 金銅彌勒佛立像이나 그와 함께 出土되었다는 비슷한 모습의 金銅五尊佛立像과 같은 것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들지 않을까 한다. ① 이 正光期의 佛像樣式은 그것이 뿌리깊게 成立된 河北地方이 東魏의 領域에 들어감으로서 繼續하여 비슷한 造像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역시 美國 펜실버니아大學 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는 天平三年銘 金銅彌勒佛을 보면 ② 北魏에서 東魏를 거쳐 다시 高句麗에 이르는 樣式推移를 어느 程度 把握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.

註

① 松原三郎 著 「中國佛教彫刻史研究」 插圖四〇、四一 및 四六頁 參照。

② 同書 一〇八頁、插圖八二參照。

正德銘甫州北岳寺銀絲香垵

黃 壽 永

一、前言

今年 四月 日本 東京에서 梅原末治博士를 만났을 때에 本會刊資料第